

광주 지역 공공와이파이 4배 빨라진다

관제센터 개소...실시간 트래픽 분석 통해 품질 개선

전국 광역단체 최초 모든 시내버스서 데이터 무료

광주지역 공공와이파이가 최대 4배 빨라진다.

광주시는 12일 시청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지역민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시민의 통신비용 절감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공공와이파이망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통신장·복지시설·보건소·복지센터·터미널·관광지 등 1899대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 시내버스에도 1044대를 설치, 전국 최초로 모든 시내버스에서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달 기준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총 데이터 사용량은 434테라바이트, 총 접속건수 6927만2441건에 달했다.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이 많더니 끊김 현상 등 민원도 증가했지만,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문을 연 광주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는 지역 공공와이파이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건수, 트래픽 양 등을 확인·분석해 관련 장애를 신속히 처리한다.

사용자가 많은 지역에는 공유기 등을 추가 설치, 시민들의 데이터 사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앞서 광주시는 트래픽 사용량이 최대치에 달하는 출퇴근 시간 데이터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화한 기기 750대를 대체,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를 제공했다.

이용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2.4GHz 공공와이파이 공유기(AP)를 교체, 2.4GHz와 5GHz 대역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와이파이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한 달 간 관제센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120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지역에는 총 3063대의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가동된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공와이파이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2023 스트릿컬처 페스타 흥행몰이 성공"

광주, 유명댄서 대거 참여...관객 등 1만여 명 호응

광주시는 지난 9~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린 2023 광주 스트릿 컬처 페스타에 댄서·관객 등 1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흥행몰이에는 스트리트댄스 축제를 통한 연계한 광주형 축제로 기획해 선보인 것이 주요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배틀라인업8과 스온스 @프린지를 동시 개최, 관객의 관심도를 높였다.

배틀라인업은 '빛고을댄서스'가 2014년부터 광주시 개최하던 1대 1 댄스 경연으로, 힙합·악킹·팝핀·오픈스타일 등 4종목으로 치러졌다. 댄스 1대 1경연 최종 우승자는 힙합 부문 '세이아'(SEIYA), 팝핀 부문 'A.K.A Two', 악킹 부문 '마리드'(MARID), 오픈스타일 부문

'호안'(HOAN)이 각각 차지했다. 배틀라인업 국내참가자는 1025명·외국인참가자는 113명으로, 참가신청은 5일 만에 마감됐다. 관람권도 30초 만에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세계적 워킹 댄서인 '프라이킹즈'와 '닉스'·'와이지엑스'(YGX) 소속 댄서 베이비주(연준희)가 참가하는 등 이번 경연대회에는 수준 높은 댄서들이 대거 참가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타지역·외국인 관람객 등 1만여 명이 축제 기간 광주를 방문, 주변 숙소와 기차표가 매진됐다.

강 시장은 "내년에는 더 크고 화려한 축제를 기대해도 좋다"며 대회 시작의 상징인 모자던지가 퍼포먼스로 축제 시작을 알렸다. /조선주 기자

'전남형 해상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활성화 모색

전남도·중앙정부·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남형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는 12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12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전남형 해상풍력·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1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익노 국가 탄핵위 포용전환국장,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지역 전문가가 참석했다.

포럼은 국가 탄핵위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조익노 포용전환국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에 선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 개소식

광주시는 12일 시청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지역민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지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남 행복시대 큰 힘"

회순서 어울 한마당·취약계층 복지증진 다짐

김영록 지사는 12일 "도내 취약가구를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화순 하니옴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어울한마당'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애쓰는 복지기동대원들이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이웃의 생활 불편을 찾아 따뜻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실천해온 그간의 노고를 격려

하고 기동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김 지사를 비롯해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구복규 화순군수와 22개 시·군 복지기동대원 등 900여명이 참석해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힘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복지기동대원들은 허름한 집을 새집으로 고치는 퍼포먼스를 비롯해 어울림 체육행사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며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록 지사는 "복지 현장 최일선

에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복지기동대의 활약이 전남 행복시대를 이끌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복지기동대원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전남의 명품 복지시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복지기동대원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우리동네 SOS' 운영 활성화, 위기가구 지원 콜(120)과 연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정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민 덕분에 50년 최악 가뭄 위기 극복"

광주, 물절약실천 우수시민·단체 12곳에 감사패 수여

강기정 시장은 12일 "최근 광주는 50년 만의 최악 가뭄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했다. 일상의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절수운동을 위해 함께 노력한 시민들 덕분에"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10%가 넘는 절수효과를 거뒀다. 가뭄에 대응한 행정의 사전비상행동, 여기에 제한급수 위기에 내린 반가운 단비까지 삼위일체가 돼 50년 만 최악의 가뭄 위기를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간 광주시와 관계 기관, 시민이 함께 노력한 광주의

가뭄대책이 대한민국의 가뭄정책이 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가뭄·홍수·폭염 안심도시 광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물 절약 실천 우수시민 12개 단체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가뭄극복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에 서구를 선정하고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지급했다.

물 절약 감사패를 받은 단체는 ▲치평동 주민자치회 ▲효천1천년 나무7단지주거행복지원센터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등이다. /권현안 기자

강 시장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과 더 대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주민협의체와 다시한번 만난 뒤 광주시의 종합적 입장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어 "지난 8일 주민협의체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다시한번 만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주민협의체와의 대화는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수심과 수량 변동없이 수질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TF전담 팀안이 과연 (풍암호수의) 원형을 훼손시키는 것인지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민간공원 사업자는 2019년 7월부터 풍암호수 수질 개선·정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수질 환경전문가 4명·공무원 4명·민간사업자 2명·농어촌공사 1명이 참여하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TF를 꾸렸다.

본사사령
▲ 편집국 지역사회부 (나주주재)
서철훈 의원면직
2023년 6월 13일자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광주' 혁신의 바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진화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광주 병의원에 진단보조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의 진료 정확도를 높입니다.

둘, 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구급차와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인공지능(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AI태블릿)을 도입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환자 투송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센터에서 개인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기초체력·검진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 시민들은 공공의료앱으로 직접 건강데이터를 관리·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광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의료기관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